세계 도서관인의 축제를 다녀와서

김 주 아*

2003년 여름. 아마도 평생 기억하며 뿌듯해 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세계 도서관인들이 모두 모이는 그 멋있는 자리에, 그것도 독일 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행운이 내게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같이 여름독서교실 준비와 진행으로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낸 후, 설레이는 마음으로 루프탄자(독일항공)에 몸을 실었다.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하는 외국여행이었기에 출국수속에서부터 비행기 안 독일인 승무원과의 간단한 의사소통 조차도 초긴장 상태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에 영어 공부 좀 하는 거였는데….

인천에서 베를린까지 7시간을 날아갔어도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잠깐 둘러본 시내는 약간 어두웠고(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일까?) 아주 늦은 밤이 아니었는데도, 행인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낯선 땅에서의 첫 아침을 그냥 맞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챙겨들고 호텔문을 나섰다. 후우후우~ 독일 공기도 마셔보고, 두리번거리며 호텔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베를린의 제1번화가 쿠담거리와 가까워서 이것저것 구경할 거리도 많았다. 거리의 가로수도 범상치 않아 보이고, 비둘기 외에도 까마귀들이 시내에서 날아다니고, 버스도 이층버스가 대부분이다. 밤샘 영업을 했는지 좀 어두운 어느 술집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바쁜 손놀림도 정겨웠다. 시내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은 좌물쇠로 굳게 잠겨있었는데, 정원수가 손질이 잘 되어있고, 자동기계가 물을 뿌려주고 있었다.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다행히도 길눈이 밝아 좀 먼 곳까지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왔다.

드디어 공식적인 IFLA 참관 시작!

ICC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는데, 도서관 견학 예약 건으로 애를 먹었다. 꼭 예약이 되어야만 도서관 견학을 할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사람 앞에 한곳씩만 예약이 되어 있어 무척 아쉽고 걱정이 되었다. 등록을 한 후, IFLA는 자유참관이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그 안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모두 자연스레 몇몇 그룹으로 나뉘어 다니게 되었는데, 나는 공공도서관에서 온 선생님들과 함께 일행을 이루게 되었다.

처음 IFLA에 참가하는 사서들을 위한 Newcomers Session에 참가한 후,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에

* 성북정보도서관 사서, kujuru@hanmail.net

간단히 베를린 관광을 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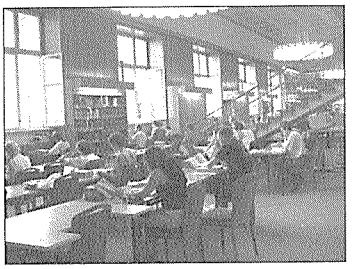
IFLA 참가 두 번째 날엔 굳은 결심을 하고 몇몇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역시 두터운 언어의 장벽!! 귀를 쫑긋 세우고, 미간을 찌푸려가며 열심히 집중 했지만, 역시 이해되는 것은 몇몇 단어뿐…. 그래도 애써 자리를 지켜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를 두었다.

세미나 후 전시 부스를 돌아보다가, 어떤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마련했다고 하여, Palace 호텔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적어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래도 우리 일행은 공짜로 고급 식사를 하였다는 뿌듯함에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저녁에는 Opening Session과 Opening Party에 참석했다. Opening Session과 Party에 TATARA라는 밴드가 분위기를 돋우었는데, 자유롭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무척 재미있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Party라는 문화에 외국인들은 자연스레 먹고 마시며 즐기는 듯 보였는데, 우리 일행은 식사 정도로의 의미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무척 아쉽다. 의사소통만 자유로웠어도 전통의상을 입고 온 아프리카 아줌마, 기분 좋게 웃던 백인 아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예약된 도서관만 견학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인별로 보고 싶은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은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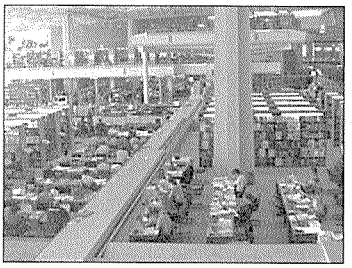
Berlin State Library는 House 1,2로 나뉘어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시는 조진숙 선생님의 인솔하에 설명을 들으며 견학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독일인들〉

House 1은 독일인 사서의 설명과 조선생님의 통역으로, House2는 조선생님의 직접 인솔하에 견학을 하였다. House 1은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서관이라 건물의 돌 하나하나도 유물이나 마찬가지다. 입구에 도서관을 안내하는 Touch Screen이 있어, 현대문명과 과거 건물과의 묘한 조화가 흥미로웠다. 도서관 건물이 네모 모양으로 연결되어 가운데가 도너츠처럼 비어 있는데 그곳은 공사중이었다. 독일은 우리처럼 날림 공사가 아니라 수십년 수백년의 시간동안 철저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공사현장을 우리나라처럼 꽁꽁 가려두지 않고 이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아예 전망 창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지도 열람실에서 특히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지도를 발견하여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한 목록집의 방대한 양과 치밀함에, 아무렇지도 않게 구석에 놓여있는 장식장이 안데르센 형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설명에, 그리고 열람실 곳곳에 진지하게 열중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모습에 숙연해지며 이 모든 것들이 무척 부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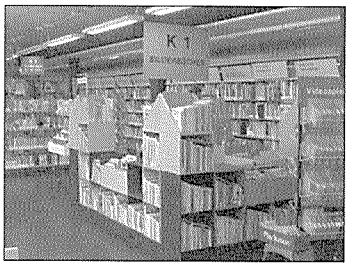
House 2는 새로 지은 현대적인 건물인데 설계자가 항구지방 출신이라 배 모양으로 설계하였다고 한다. 곳곳에서 참고봉사하는 사서들과 역시 진지한 모습의 이용자들 모습이 무척 멋있었다. 둘러보던 중에 문득 보았는데, 어떤 이용자가 원하던 자료를 사서에게서 제공받았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사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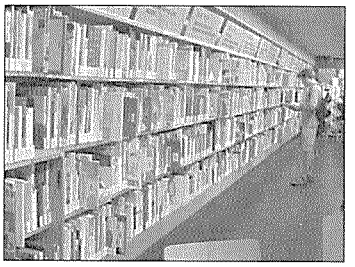

〈Berlim State Libray houses의 현대적인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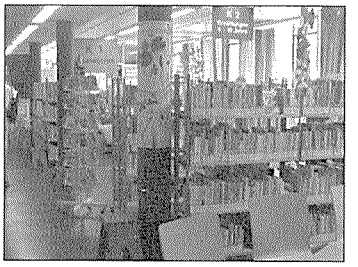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내 스스로의 근무하는 모습이 어떠했을는지 반성도 하게 되었다.

혹시 다음에 방문할 기회가 있는 분들을 위해 몇마디 조언을 하자면, 가방은 모두 도서관 입구에서 보관함이나 보관코너에 맡기고 들어가야 하며,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하나, 플래쉬를 터뜨리지 않는 촬영은 일부 할 수 있다(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설명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메모장과 필기구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 본인의 경우 이를 챙기지 못하여 설명을 들었던 도서관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 외에도 도서관이 건설 중이어서 House 1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Houmbolt University Library와 역시 훔볼트 대학 법대 도서관도 견학하였고, 어린이 도서관에 꼭 가보고 싶어서 조진숙 선생님께 부탁드려 안내 받은 Gentral - und Landesbibliothek Berlin도 견학하였다.


〈어린이실 내부전경〉


〈어린이실 내부전경〉


〈어린이실 내부전경〉

Gentral - und Landesbibliothek Brelin의 어린이 열람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종류의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좋았다. 입구에서 한층 내려가는 지하1층에 위치하는데도, 바로 옆에 정원을 꾸며두어 휴게공간도 많고 채광도 좋았다. Gentral - und Landesbibliothek Brelin의 경우 견학 인솔을 받지 않고 개별 방문한 것이었지만 입구에서 IFLA 참가자를 위한 안내자들도 앉아 있고, 근무하는 사서들도 눈이 마주치면 쌩긋 웃어주어 마음 놓고 둘러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IFLA가 개최될 때에도 특별하게 자원봉사 하지 않아도 사서로서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친절히 잘 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자기한 열람실 모습〉

〈설명에 열중하는 멋있는 사서분(맨 왼쪽 여자분)과 경청하는 다국적 사서들〉

IFLA 공식 일정 마지막날, 일행 선생님들을 따라 Stadtbibliothek를 견학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정겨운 도서관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서 한참을 가서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가깝고, 쇼핑센

터가 있어 근방 주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서들도 순박하게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투른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무척 정겨웠다. 특히 맨 윗층의 어린이 열람실 사서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듬뿍 가지신 멋진 어린이 전문 사서여서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이날 저녁 Berlin State Library House 2에서 마지막 공식일정인 Cultural Evening이 있었다. 간단한 폐회식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한 후 모두 자유롭게 도서관 곳곳에서 음료와 맥주를 즐겼다. 어두워가는 도서관을 배경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는 전세계 사서들의 모습을 보니, 같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2003년도 제69회 IFLA in Berlin에서의 일정들을 되돌아 보면, 역시 가장 아쉬운 것은 언어의 장벽으로 좀더 많이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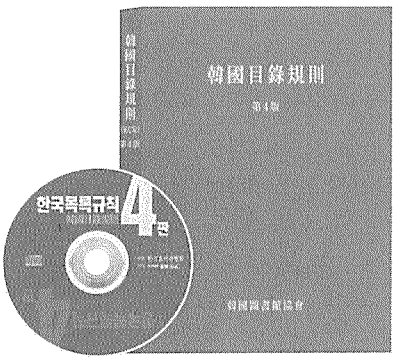
하지만, 비록 다른 나라 사서들과 교류하진 못했어도, 동행한 다른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무척 즐겁고 소중하였다. 또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무하는 열람실과 도서관안에서만 머물렀던 생각들이 이젠 다른 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여러 도서관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여러 도서관으로 확장된 것 같아 뿌듯하다.

더불어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는 IFLA도 어느나라 못지 않게 멋지게 치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신 간

韓國目錄規則(KCR) 第4版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목 차

- 제0장 총칙
- 제1장 기술총칙
- 제2장 단행본
- 제3장 지도자료
- 제4장 고서와 고문서
- 제5장 악보
- 제6장 녹음자료
- 제7장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 제8장 전자자료
- 제9장 입체자료(실물)
- 제10장 마이크로 자료
- 제11장 연속간행물
- 제12장 점자자료
- 부록 1 : 약어표
- 부록 2 : 용어해설
- 부록 3 : 국명형식
- 부록 4 : 언어부호표
- 색인 찾아보기

양장본/크라운국판/580쪽
ISBN 89-7678-066-3(세트)
정가 120,000원
회원보급가 96,000원(CD-ROM 포함)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